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박 지 배**

- | | |
|-------------------------|----------------------------|
| I. 머리말 | 리청전투: 제1차 '나선정벌' |
| II. 러시아의 동방 진출 | IV. 1658년 리청전투: 제2차 '나선정벌' |
| III. 러시아의 아무르 진출과 1654년 | V. 맺음말 |

I. 머리말

러시아의 동진은 청의 서진과 함께 근대 유라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동진의 결과 러시아 영토는 추코트 반도와 연해주까지 확대되었고, 러시아는 중국, 몽골, 한반도, 일본 등과 국경을 맞대는 동북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6~17세기 러시아의 동진에 대한 한국의 연구는 아직 개설적인 수준이다.¹⁾ 다만 한국 역사가들은 유독 러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조교수

1) 이철, 『시베리아 개발사』 (서울, 민음사, 1990); 심현용, 「러시아 동진의 군사적 성격과 통치구조(16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중소연구』 27권 2호(서울,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2003); 이완중, 「러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동북아 역사논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5); 박명용,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문제 -1650년에서

아가 동북아 진출 과정에서 청나라와 벌인 '1654년 전투'와 '1658년 전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두 차례의 전투가 청의 요청으로 조선군이 참여한 '나선정벌'이라 부르는 해외파병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역사가들은 '나선정벌'을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 조선 조총병들의 빛나는 성과이며, 나아가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술하곤 한다.²⁾ 예를 들어 '나선정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박태근은 비록 자주적 출병은 아니나, "1658년 흑룡강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국지전의 승리가 아니고 신유장군이 지휘한 조선군 화력부대의 주도적 역할로 러시아의 동아시아 출정을 처음으로 저지해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도전자인 러시아 세력을 10년 만에 흑룡강·송화강에서 일소하는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고 평했다.³⁾ 그리고 반윤홍은 "나선정벌은 동북 만주지방에서 러시아의 동진을 차단하여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는 점과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후일 러시아와 흑룡강을 경계로 한 네르친스크 국경조약을 체결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⁴⁾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계승범은 '나선정벌'은 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약 30년간에 걸쳐 수행한 숭한 전투 중의 하나였으며, '나선정벌'의 의미를 동아시아 정세의 틀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역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만주로 남하하려는 러시아 세력"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나선정벌(1658년 러청전투)'을 이러한 남하를 저지하는 데 기여한 세계사적 차원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⁵⁾

1900년까지」 『북방사논총』 4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5) 등.

2) 姜周鎭, 「韓國과 러시아의 外交史의 考察」 『대구사학』 13(대구, 대구사학회, 1977); 박태근, 「朝鮮軍의 黑龍江出兵」 『한국사론』 9(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3); 반윤홍, 「備邊司의 羅禪征伐 籌劃에 대하여: 효종조 寧古塔 과병절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11 (서울, 고려사학회, 2001); 李康七, 「朝鮮孝宗朝 羅禪征伐과 被我 烏銃에 對한 小考」 『古文化』 2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2) 등.

3) 박태근, 앞 논문, 253쪽.

4) 반윤홍, 앞 논문, 143쪽.

5) 계승범,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사학연구』 110 (서울, 한국

한편 러시아 학자들은 대개 '나선정벌' 사건에서 조선군의 역할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많은 러청 관계사 저술들이 '1654년 전투'(제1차 나선정벌)와 '1658년 전투'(제2차 나선정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조선군에 대한 언급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⁶⁾ 다만 러시아의 몇몇 한국학 연구자들이 '나선정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내놓았지만, 대체로 조선군의 역할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한국 연구자들의 민족주의적 연구태도를 지적하기도 한다. T. M. 심비르체바는 한국에서 '나선정벌' 연구는 역사상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국가와 개별 학자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외교적, 이념적 신조라고 생각한다.⁷⁾ 또한 2014년에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슬라브 국제학술대회'에서 러시아 출신의 한 연구자는 '1658년 전투'에서 조선군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조선군의 역할은 단지 만주군에게 부족했던 화력을 보충한 것에 불과했으며, 제2차 나선정벌에서 청군이 승리한 것은 일부 카자흐들이 배에서 뛰쳐나오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 다만 러시아의 전쟁사 연구자들 일부가 17세기 중엽 청과 러시아 사이의 전투에서 조선 총병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⁹⁾

사학회, 2013), 226~227, 239쪽.

- 6) В. С. Мясников, *Империя Цин и рус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XVII веке* (Москва, 1980); Е. Л. Беспрозванных, *Приамурье в системе рус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XVII – середина XIX в.* (Москва, 1983); И. Попов, *Россия и Китай 300 лет на грани войны* (Москва, 2004); S. M. 두다료노프 외/양승조 옮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진인진, 2018) 등.
- 7) T. M. Симбирцева,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их отрядов в Албазинских войнах 1654 и 1658: Источники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 а Азии*. Вып. 3 (Благовещенск, 2001).
- 8) А. В. Дудникова, “Роль Кореи в «Албазинских войнах» 1654 и 1658 гг.,” (2014년 6월 동아시아슬라브학술대회)
- 9) Л. А. Бобров, А. М. Пастухов, “Роль ручного огнестрельного оружия в венном искусстве корей в XVII веке,” *Вестник НГУ. Серия История. Филология*. Т.11. Вып.3 (2012).

전반적으로 러시아 학자들의 '나선정벌' 연구는 단지 러청 간의 외교사적 측면에서만 다루거나, 조선 총병의 우수함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두 차례의 '나선정벌'에서 그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한국의 '나선정벌' 연구는 동북아 정세를 단순히 추정하여 17세기 러시아의 의도적 남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기에 '나선정벌'을 대입해 조선군의 활약을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본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카자크의 동진을 지원하며 부족 단위의 이무르 원주민들을 복속하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대립을 감수하며 남하하려 했는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또한 민족주의 시각에서 조선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나선정벌'에서 조선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러시아 동방진출의 성격과 러청 간 외교관계의 추이를 고려하고, 최초 전투가 있었던 1652년부터 제2차 '나선정벌'이 벌어진 1658년까지 러청 간의 여러 전투들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는 남하할 의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선정벌'에서 조선군의 역할은 어떠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료를 보다 정밀히 검토해야 하며, 또한 새로운 러시아 외교문서들을 추가해 당시 전황과 러시아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선정벌에 관한 중국 측 자료는 알려진 바가 없다.¹⁰⁾ 따라서 필자는 러시아에서 편찬한 <17세기 러중관계사 사료집>과 <고문헌 위원회 수집·편찬 문서집> 등에 등장하는 러청관계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¹¹⁾ 그리고 <효종실

10) 한국 뿐 아니라 러시아 측 연구자들도 이미 중국 측 자료의 부재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계승범, 앞 논문, 209쪽; T. M. Симбирцева, 앞 논문, p.179.

11) *Акты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бранные и изданные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ю комиссией*, Т.4. 1645~1676 (Петербург, 1842)-АИ로 약함; Дополнения к актам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ранные и изданные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Т.3 (Петербург, 1848)-ДАИ로 약함;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VII веке. Материалы и документы*. Т.1, 1608~1683 гг. (Москва, 1969)-РКО로 약함.

록), 〈영조실록〉, 〈북정일기〉¹²⁾ 등 조선 측 기록들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II. 러시아의 동방 진출

16세기 이후 서유럽의 해상 팽창에서 화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특히 대포는 전통적인 해상 무역로의 주요 지점들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육지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선상에서 발포하는 포탄에 대해 육지 주민들은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다. 모스크바의 동방팽창에서도 대포의 역할은 중요했다.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유목민들도 대포와 소화기로 공격하는 러시아 군사세력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윌리엄 맥닐은 모스크바 공국의 범위는 대포를 어디까지 운반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언급한다.¹³⁾ 실제로 거대한 유라시아 북동부에는 큰 강들이 구석구석 흐르고 있어 수로가 연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대포를 이용해 재래식 방어시설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요충지에 방벽을 갖춘 요새를 건설하고, 대포를 설치하면 원주민들의 공격을 쉽게 차단할 수 있었다.

물론 총병의 역할도 중요했다. 러시아는 1630년대에 유럽으로부터 부식들의 원리를 이용한 수석식 소총을 도입했고, 1650년대에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급했다.¹⁴⁾ 훈련이 잘 된 총병들은 포병이 기동할 수 있도록 엄호했고, 적정 거리에서 적의 갑옷을 뚫고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 이반 4세는 포병과 총병을 주축으로 한 병력을 이끌고 1552년 볼가 강 중류에 위치한 카잔칸국의 견고한 성곽을 격파했고, 이어서 1556년에는 볼가 강 하구의 아스트라한칸국을 정복했다.¹⁵⁾ 카

12) 『효종실록』; 신유/박태근 역, 『북정일기』 (정신문화연구원, 1980); 신유, 신기석 편역, 『북정일기』 (탐구당, 1980); 신유, 『북정록』 (알마, 2006) 등.

13) 윌리엄 맥닐/신미원 역, 『전쟁의 세계사』 (이산, 2005), 134쪽.

14) Richard Hellie, *Enserfment and Military Change in Muscovy* (Chicago, 1971), p.181.

15) В. Волков, *Войны и войска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ю (конец XV первая*

잔과 아스트라한의 정복으로 러시아는 동부와 남부 방면에서 중요한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자 다음 세기에 모스크바 영토에 속한 다양한 주민들은 부와 자유를 찾아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동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¹⁶⁾

16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동방진출의 동기는 모피 때문이었다.¹⁷⁾ 추운 기후에 삼림과 수자원이 풍부한 북아시아에는 흑담비, 여우, 밍크, 수달, 비버 등 수 많은 모피수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특히 16세기에 서유럽의 아메리카 정복이 시작되면서 아메리카의 귀금속이 동유럽으로도 유입되었고 귀금속이 부족한 러시아는 서유럽에 모피를 팔아 은과 화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방 진출이 처음부터 모스크바 정부가 주도한 사업은 아니었다. 먼저 스트로가노프 같은 상업 세력이 관심을 가지고 자본을 대었고, 러시아 점령지대의 자유민인 카자크들이 탐험을 주도했으며, 민간 상인들은 모피를 유럽러시아로 가져다 유통 시켰다.¹⁸⁾

모스크바 정부는 단지 재정적 필요와 영토적 가치를 생각해 이러한 사업을 사후에 승인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집권국가로 막 첫발을 내딛은 모스크바국의 국가조직으로 방대한 동부 아시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었다. 특히 16세기 말~17세기 초에 러시아는 파멸적인 동란시기를 겪으며 국가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1613년 겨우 동란을 수습하고 로마노프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내외적으로 동란의 후유증들을 극복해야 했다.¹⁹⁾ 러시아 정부는 17세기 내내 왕권을 안정화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서부와 서북부 국경에서 스

половина XVII в.) (Москва, 2004), pp.107~111 참고.

16) 피터 C. 퍼듀/공원국 역, 『중국의 서진』 (길, 2014), 121쪽.

17) A. A. Каплин, *Пушнина СССР* (Москва, 1960), p.131.

18) 러시아의 모피 무역에 관해서는 피셔의 책을 참고할 것. R. H. Fisher, *The Russian Fur Trade 1550-1700*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3).

19) Н. И. Павленко, И. Л. Андреев, В. Б. Кобрин, В. А. Федоров,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1861 года* (Москва, Высш. шк., 1996) pp.168~185.

웨덴, 폴란드 등과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했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모스크바 정부는 멀리 동방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주도할 형편은 아니었다.

동방진출의 핵심세력은 카자크였다. 카자크의 등장은 봉건적 압제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러시아의 농민과 상공인 일부가 특권 귀족들의 압제를 피해 도주했고,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접경 지역에 거주했다. 이들은 때로는 러시아 정부의 위협이 되기도 했는데 17~18세기 러시아의 주요 봉기, 즉 스테판 라진, 블라빈, 푸가초프 등의 봉기들은 그 중심세력이 바로 카자크였다.²¹⁾ 카자크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모스크바 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렸지만 대신 변경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카자크들은 처음부터 모험심이 강한 전사일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러시아의 동진에 가장 적합한 무리였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 바르톨드(B.V. Бартольд)는 러시아의 동방진출의 과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거의 모든 원정은 카자크인들 자신의 의도에 따라 감행되었으며 모스크바 당국은 어떤 종류의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모스크바 당국이 나타나 새로운 영토가 군주의 소유물로 합병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원정이 완료된 후였다.”²²⁾

러시아의 동방팽창과 식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동부 아시아의 거대한 수로체계였다. 먼저 모스크바국은 카잔칸국과 아스트라한칸국을 정복함으로써 볼가강 지류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로써 모스크바국의 주민들은 볼가수로체계를 통해 남부 곡창지역, 카스피 해, 그리고 우랄 지역 등 러시아 여러 지역으로 뻗어갈 수 있었다. 이후 동부 팽창에서도 카자크, 사업가, 모험가 등은 광대한 시베리아의 남북을 연결하는 장대한 강들을 활용했다. 이동의 주요 강들로는 우

20) 17세기 러시아가 수행한 굵직한 전쟁만 꼽아도 다음과 같다. 스몰렌스크 전쟁(1632~34년), 우크라이나 전쟁(1648~54년), 모스크바-폴란드 전쟁(1654~67년), 러시아-스웨덴 전쟁(1656~58년), 러시아-오스만튀르크 전쟁(1676~81년) 등.

21) Я. Е. Водарский,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и за 400 лет (XVI—начало XX вв.)* (Москва, 1973), pp.33~34.

22) 퍼듀, 앞의 책, 763쪽 재인용.

랄 강, 이르티쉬 강, 오브 강, 예니세이 강, 레나 강, 알단 강, 아무르 강 등을 들 수 있다.²³⁾ 카자크들은 이 강들을 따라 이동하며 적절한 간격을 두고 거점 요새를 건설했고, 그 중에 군사 및 상업 요충지들은 거점 도시로 성장했다.²⁴⁾

카자크들은 1574년에 볼가 강 지류인 벨라야 강과 우파 강의 합류 지점인 우파(Уфа)에 요새를 세웠고, 1587년에는 토볼 강과 이르티쉬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토볼스크(Тобольск)를 건설했다. 토볼스크는 시비르칸국의 수도였던 이스케르(Искер) 인근에 위치했는데 동부 시베리아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²⁵⁾ 이후 1594년에 러시아인들은 이르티쉬 강변에 타라(Тара)를 건설했다. 타라는 러시아가 카자흐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주요 거점이 되었다. 러시아인들은 더 동쪽으로 진출하여 1604년에는 오브 강 지류의 톱 강에 톱스크를 건설했고, 1619년에는 예니세이 강변에 예니세이스크를 세웠다.²⁶⁾ 그리고 1632년에는 레나 강을 거슬러 북상하여 레나 강변에 야쿠츠크를 건설했다.²⁷⁾ 그리고 1640년에(혹은 1642년에) 야쿠츠크에 시베리아 동부 지역의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할 야쿠츠크 정청(воеводство)이 설립되었다. 야쿠츠크는 러시아가 연해 지역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무르 지역으로 뻗어나가는데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16~17세기 동안 러시아에 편입되기 시작한 시베리아에는 토볼스크와 야쿠츠크 두 개의 중심이 만들어졌다. 토볼스크는 서부 시베리아의 중심이었고, 야쿠츠크는 동부 시베리아의 중심으로 특히 러시아 극동 진출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23)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СССР.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XVII в.* (Москва, Изд-во АН СССР, 1955), карта Сибирь в XV-XVIII веках 참고.

24) Nellie, 앞 책, p.35.

25) Е. И. Тимонин,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Сибири. Конец XVII века* (Омск, 2012), p.50.

26) 같은 책, p.367.

27) С. В. Бахрушин и С. А. Токарев, ред. *Якуция в XVII веке* (Якутск, 1953), p.31.



(지도1) 시베리아의 강들

동부 시베리아의 중심인 야쿠츠크에서 시작된 극동 탐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야쿠츠크에서 레나 강을 따라 내려와 북빙양을 거쳐 콜피마 강 하구에 1644년에 설립된 네즈네-콜림스크(Нежне-Колымск)를 거점으로 해로 및 육로를 이용해 추코트 반도와 캄차카 반도로 진출하는 것이다.²⁸⁾ 그 이후는 아메리카로의 팽창인데 여기서 러시아인들은 바다라는 새로운 제약으로 인해 잠시 머뭇거렸다.(지도1 참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야쿠츠크(Якутск)에서 시작해 알단 강과 제야 강을 통해 아무르 강으로 진입하거나 또는 올레크마(Олекма) 강과 수륙로를 통해 아무르 강으로 진입해 이동하는 것이다.²⁹⁾ (지도2 참고) 물론 이러한 아무르 진출은 강력한 군사제국인 청과의 대립을 의미했다. 그러나 당시 청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던 러시아 카자크들은 아무르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인들이 아무르 유역으로 진출한 실질적인 이유는 현지에서 식량을 확

28) Тимонин, 앞 책, pp.71~72 참고.

29) Г. А. Леонтьева, *Землепроходец Ерофей Павлович Хабаров* (Москва, 1991), pp.12~17 참고.

보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유럽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동시베리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곡물과 물자가 필요 했는데 북아시아 지역은 모피 동물은 많았지만 식량 자원은 부족했다. 그러던 차에 카자크들은 제야강과 올레크마강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아무르 유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현지인들이 아무르강을 지칭했던 ‘치르콜라(Чиркола)’ 강 유역은 토양이 매우 비옥하며, 모피 짐승들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지역에 거대한 은산이 있다는 소식도 퍼졌다.³⁰⁾ 이렇게 해서 아무르 유역은 새로운 모피 자원뿐 아니라 동부 시베리아의 다른 주둔지들을 부양할 보급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³¹⁾ 이러한 상황에서 1643~46년에 포야르코프(В. Д. Поярков)는 탐사대를 인솔하여 레나강-알단강-제야강을 통해 아무르강으로 진입하여 호호츠크해까지 항해했다.³²⁾ 또한 1649~51년에 하바로프는 레나강-올레크마강을 통해 아무르강으로 진입하는 길을 발견했다.³³⁾ 레나강에서 아무르강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발견은 카자크들의 아무르 진출을 가속화시켰다.

Ⅲ. 러시아의 아무르 진출과 1654년 러청전투: 제1차 ‘나선정벌’

러시아가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6세기 중반에 서유럽 국가 특히 영국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이베리아 국가들의 ‘지리상의 발견’ 이후 북서유럽 국가들 역시 동방으로 가는 또 다른 루트를 찾는 일에 몰두했다.³⁴⁾ 영국인 리처드 첼슬러는 동방으로 가는 북동항로를 개척하던 중에 백해에 면한 러시아

30) Н. Н. Волховитинов, отв.ре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1732-1867)*. Т.1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 отношения, 1997), p. 17.

31) 퍼듀, 앞 책, p.129.

32) ДАИ, Т.3, №12, pp.50-52.

33) ДАИ, Т.3, №72, pp.258.

34) R. A. 스킨톤/안재학 역, 『탐험지도의 역사』(도서출판 새날, 1995), 137~138쪽.

땅에 도착했고, 이후 공식적인 리영관계가 시작되었다.³⁵⁾ E. O. 모로조바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시베리아를 통해 중국과 교역하기를 집요하게 요구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서유럽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로 탐사에 대한 열정은 러시아 정부가 중국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³⁶⁾ 특히 17세기 초에 러시아와 서몽골의 외교관계가 발전했고, 러시아는 서몽골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 시작했다.³⁷⁾ 1618년에 러시아 최초의 대중국 사절인 이반 페틀린(Иван Петлин)이 서몽골을 통과해 명의 수도 북경에 도착했으나 명 황제를 알현하지는 못하고, 친서만 받아가지고 돌아왔다.³⁸⁾ 러시아 차르가 페틀린을 중국으로 보낸 목적은 양국 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³⁹⁾

한편 17세기 중엽에 아무르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중국 동북부 변경에 근접하게 되었다. 1640년대에 포야르코프가 이끄는 카자크 탐사대는 미지의 땅을 탐사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확인하려 했고, 동부 시베리아 원주민들을 통해 중국이 멀지 않다는 정보들을 입수했다.⁴⁰⁾ 그러나 이 시기는 명청교체기여서 서몽골을 통해 얻은 명나라에 대한 정보와 아무르에서 수집한 만주국가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러시아인들은 한동안 중국, 만주, 명, 청

35) С. Ф. Огородников, *Очерк истории города Архангельска в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м отношении* (Петербург, 1890), pp.41~42.

36) E. O. Морозова,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торгов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конце XVI—середине XVII века”, Автореферат канд. ист. наук (Екатеринбург, Урал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2013), pp.20~22, 25.

37) 토마스 바펠드/윤영인 역,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2009), 563~564 쪽.

38) А. А. Новосельский, “С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СССР.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XVII в.* (Москва, Изд-во АН СССР, 1955), pp.547~548.

39) E. O. Морозова, 앞 논문, p.22.

40) Попов, 앞 책, p.45.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⁴¹⁾ 청 정부 역시 1640년대에 포야르코프가 아무르 지역을 탐사하며 다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⁴²⁾ 이 시기에 청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명과의 결전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동북부 변경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⁴³⁾ 그러나 1649년에 하바로프의 아무르 원정이 시작되며 러시아인들의 출현이 잦아지자 청 정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랑캐가 아무르 지역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⁴⁴⁾

하바로프는 야쿠츠크 지사 프란츠베코프(Д. А. Францбеков)의 도움으로 1649년에 1차 아무르 원정을 떠나 지역 상황을 이모저모 조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르 원주민들이 보그도이 공후(Богдойский князь)에게 공물을 바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보그도이 공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⁴⁵⁾ 하바로프는 야쿠츠크 정청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병력을 강화하여 2차 원정을 준비했다. 야쿠츠크 지사는 1650년 7월9일⁴⁶⁾ 지침에서 아무르 지역을 러시아에 병합하고, 보그도이 공후를 러시아 차르에게 복속시키고, 거부하는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⁴⁷⁾ 야쿠츠크 정청은 아직 보그도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단지 아무르의 부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하바로프는 1651년 6월 5-6일 경에 마침내 구이구다로프 마을(Гуйгударов городок)에서 보그도이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만주어를 알지 못해 그들로부

41) Мясников, 앞 논문, p.11.

42) Г. В. Мелихов,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на восток и Нерчинский договор с Китаем”, *Истор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онец XV-XVII век (От свержения ордынского ига до Северной войны)*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p.250 참고.

43) 조너선 D. 스펜스/김희교 역, 『현대중국을 찾아서』 1 (이산, 1998), 63쪽.

44) Мелихов, 앞 논문, p.255 참고.

45) ДАИ, Т.3, No72, pp.260.

46)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사료의 날짜를 사용했다.

47) РКО, No55, pp.126-128.

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⁴⁸⁾

하바로프는 제2차 원정(1650~53)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러시아 학자들은 하바로프의 원정으로 아무르 지역 전체가 러시아 카자크의 수중에 들어왔다고 평가한다.⁴⁹⁾ 하바로프의 카자크 부대는 1651년에 아무르 상류에 위치한 다우르인들의 마을을 점령하고 알바진 요새를 건설했고, 또한 아무르 하류 볼론 호(озеро Болонь) 인근의 올치족 마을을 점령하여 아찬 요새(Очанский острог)를 세웠다.⁵⁰⁾ 그리고 1652년에는 쿠마라 강이 아무르 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쿠마르스크 요새(Кумарский острог)를 건설함으로써 아무르 지역에 주요 군사 거점들을 확보했다.⁵¹⁾ 카자크들은 이러한 요새들을 기반으로 아무르 강을 따라 왕래하며 원주민들에게 모피 조공을 거두었고, 중국에 대한 정보도 틈틈이 수집했다.

V. S. 마스니코프에 따르면 17세기에 아무르, 연해주, 사할린에 약 4만 700명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⁵²⁾ 당대 아무르 지역 카자크의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무르 원주민은 다우르(дауры), 듀체르(дючеры), 나트카(натки), 길랴크(гиляки) 등이다. 다우르인은 주로 실카 강 하류, 아무르 강 상류에서 제야강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했다. 듀체르인은 아무르 강 중류에서 하바롭스크 인근까지, 그리고 송화 강 유역과 우수리 강 일대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트카인은 돈돈(Дондон) 강부터 시작해 아무르 하류 쪽으로 퍼져있었고,⁵³⁾ 길랴크인은 니

48) РКО, №61, p.135.

49) В. С. Мясников, “Становление связей ру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 Китаем”,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VII веке. Материалы и документы*. Т.1. 1608-1683 гг. (Москва, Наука, 1969), p.11; Мелихов, 앞 논문, p.257; Попов, 앞 책, p.5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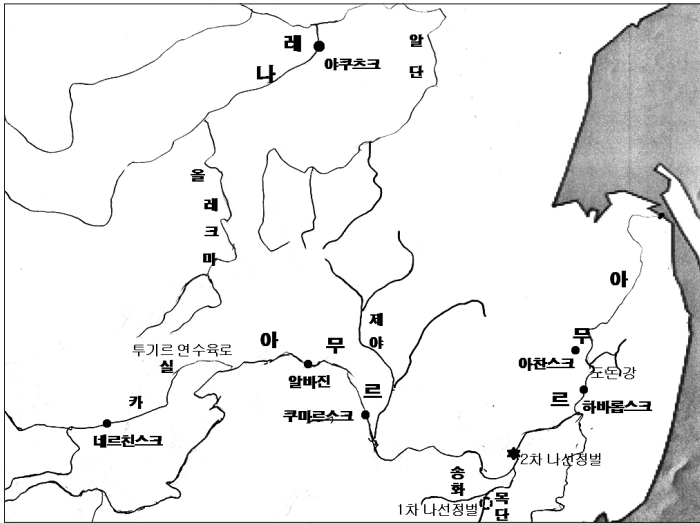
50) Леонтьева, 앞 책, pp.61~63, 74~75.

51) Попов, 앞 책, p.60.

52) В. С. Мясников, *Договорными статьями утвердили* (Москва, 1996), p.37 (Попов, 앞 책, 48쪽에서 재인용)

53) Б. А. Васильев, “Народы приамурья”,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СССР. Период фео*

브흐인(нивхи)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르 하류와 사할린 등지에 거주했고 신유 장군은 <북정일기>에서 이들의 거주지를 팍개부락(復可部落)이라 언급한다.⁵⁴⁾ 한편 <북정일기>에는 건부락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데 박태근은 러시아에서 이들을 골다이인(гольды), 올차인(ольчы)이라 부른다고 설명한다.⁵⁵⁾ 그러나 17세기 당대인들은 나트카, 길라크, 골다, 올차 등 돈돈 강 북동쪽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어업과 사냥 등으로 생활했으며,⁵⁶⁾ 개를 많이 키우는 등 유사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여 부르기보다는 통칭하여 불렀던 것 같다. 카자크들은 길라크인이라 불렀고, 신유 장군은 건부락인이라 불렀는데 둘 다 개(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지도2) 17세기 중엽 아무르 지역

дализма XVII в. (Москва, Изд-во АН СССР, 1955), pp.844.

54) 『북정일기』, 119쪽.

55) 『북정일기』, 71쪽.

56) Васильев, 앞 논문, 846~847쪽.

카자크들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아무르 주민들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 정부는 아무르 원주민들을 복속시키고 조공을 거두되, 그들을 죽이거나 약탈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예를 들어 1654년 12월에 최초의 아무르 지사 파쉬코프(А. Ф. Пашков)에게 내린 임명장이나, 1655년에 아무르 대장 스테파노프(Онуфрий Степанов)에게 보낸 명령서를 보면 원주민들을 약탈하거나, 포로로 잡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명령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대개 카자크들은 매우 거칠었고, 약탈행위도 흔했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카자크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보다 제3의 관찰자인 신유 장군의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카자크들은 원주민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볼모로 붙잡아 조공을 요구했는데, 1658년 제2차 '나선정벌' 때도 카자크 선박에 100명의 듀체르 여자들이 붙잡혀 있었다.⁵⁸⁾

특히 카자크들은 식량이 부족해지거나 다른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원주민을 약탈하기 일쑤였다. 신유 장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카자크들은 원주민에게 조공을 거두다 골간 또는 건부락 원주민의 습격을 받아 사상 피해를 입기도 했다.⁵⁹⁾ 카자크들의 행위에 원주민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아무르 원주민들은 청의 아무르 정책 때문에도 큰 고초를 겪었다. 청 정부는 러시아 카자크와의 전투를 위해 원주민들을 차출했고, 이는 원주민 사회·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또한 청 정부는 전투가 격해지자 러시아인들의 식량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아무르 지역을 초토화했고, 이 때문에 많은 원주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았으며, 심지어 중국 땅으로 강제 이주해야 했다.⁶⁰⁾

청 정부는 1650년대 들어 아무르 지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650년 12월에 명의 마지막 왕인 계왕의 조정이 망명길에 오르면서, 청 정부는

57) РКО, No.78, p.201; РКО, No.79, p.205.

58) 『북정일기』, 91쪽.

59) 『북정일기』, 78-78, 80쪽.

60) Мясников, 앞 책, pp.123~124.

조금 여유를 갖게 되었다.⁶¹⁾ 아직도 삼번 세력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남았지만 그래도 큰 고비는 넘긴 셈이다. 이제 청도 누구지 알 수 없는 세력이 화기를 가지고 청의 발원지인 만주의 북부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V. S. 마스니코프는 1651년에 하바로프가 만난 보그도이 사람들이 침입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청의 척후병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⁶²⁾ 바로 다음 해인 1652년에 영고탑의 만주군이 아무르의 카자크 요새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1652년 3월에 청과 러시아의 첫 번째 군사 충돌이 발생했다. 청군은 영고탑 양방장경(昂邦章京, 지방관 또는 지방장군) 하이세(海塞)의 지휘 하에 2천여 명의 병력(만주군 600명, 다우르인과 듀체르인 1,500명)을 파견하여 아무르 강 하류의 카자크 요새 아찬을 공격했다. 당시 아찬 요새를 수비하는 카자크 병력의 수는 206명이었다.⁶³⁾ 전황은 하바로프가 야쿠츠크 지사에게 보낸 답변서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청군은 3월24일 이른 새벽에 격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마침내 목조 방벽의 일부를 부수고, 일제히 그 부서진 틈으로 물려들었다. 이때 성안에 있던 카자크들은 거대한 청동 대포를 발포했고, 이에 청군은 큰 타격을 입고 후퇴했다. 이후 156명의 카자크 대원들이 달아나는 청군을 추격하여 최종적으로 무너뜨렸다. 전투는 러시아의 대승으로 끝났다. 청은 상대를 과소평가한 성급한 작전으로 패배를 자초했다.

러시아 측 기록에 따르면 청군은 676명이 사망한데 비해, 러시아 군은 단지 10명만 전사했다. 하바로프는 청군의 대포 2대와 소형화기 17정, 8개의 군기 그리고 말들과 식량을 획득할 수 있었다.⁶⁴⁾ 그러나 이러한 승리 이후 하바로프 원정대 내에 불화가 발생했다. 원정 참가자들 일부는 요새를 건설하고 경작지를 마련하기 원했던 반면에 성공에 도취된 하바로프는 계속해서 원주민들을 수탈하려

61) 스펜스, 앞 책, 65~66쪽.

62) Мясников, 앞 책, pp.95~96.

63) Попов, 앞 책, p.57.

64) ДАИ, Т.3, №102, p.367.

했다. 모스크바 정부는 1653년에 봉직귀족 지노비에프(Д. И. Зиновьев)를 파견하여 조사를 벌였고, 그는 하바로프가 여러 면에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⁶⁵⁾ 그는 아무르에 20일간 머물렀고 하바로프와 함께 모피 공물 장부와 현지 통역자들을 데리고 모스크바로 돌아갔다.⁶⁶⁾ 하바로프 대신 오누프리 스테파노프가 카자크 부대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⁶⁷⁾

한편 아무르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러시아의 차르 알렉세이는 1654년 2월에 바이코프(Ф. И. Байков)를 대중국 사절로 보내는 명령서를 내렸다. 그런데 1652년 아찬에서 러청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더욱이 러시아 정부는 매우 정중하게 “우정과 사랑에 관한 그리고 국가 간의 선한 업무에 관한” 서신을 보그도이 칸-차르(Бугдыхан-царь)에게 보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공식적인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⁶⁸⁾ V. S. 마스니코프는 심지어 러시아 차르가 바이코프에게 내린 다른 비밀문서에도 아무르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한다.⁶⁹⁾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러시아 정부는 아직 아찬에서 자신들이 격퇴한 세력이 청의 군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즉 1654년까지도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사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1654년에 신임 아무르 지사인 파쉬코프에게 내린 명령서도 흥미롭다. 여기에서 차르는 아무르에서 키타이(Китай)는 얼마나 먼지, 그리고 보그도이 차르국(Богдойское царство)과 니칸 차르국(Никанское царство)은 얼마나 먼지 조사하라고 명하고 있다.⁷⁰⁾ 키타이는 중국, 보그도이 차르국은 청(만주), 니칸 차르국은 명에 해당하는데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별개의 국가라고 생각했

65) S. M. 두다료노프,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p.59.

66) Леонтьева, 앞 책, pp.98~100.

67) Мясников, 앞 논문, p.15.

68) РКО, №71, pp.152~165.

69) Мясников, 앞 논문, p.13.

70) РКО, №78, pp.200~201.

던 것이다. 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1654년 조선의 1차 ‘나선정벌’을 위한 파병이 있었을 때 청에서 파견한 차관 한거원은 나선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영고탑 옆의 별종”이라고 답했다.⁷¹⁾ 결국 1654년경에 청과 러시아 정부 모두 아무르에서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청의 순치제는 1652년 아찬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아무르에 출몰한 오랑캐에 대한 복수전을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1652년 전투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방영고탑장경(駐防寧古塔章京) 하이세를 처형하고, 아찬 전투를 지휘했던 시푸의 관등을 해제하고 곤장 100대를 쳤다.⁷²⁾ 1653년 6월에 사르후다(沙爾虎達)를 양방장경으로 승격시켜 반격 작전을 준비했다.⁷³⁾ 영고탑 양방장경은 아무르강, 송화강, 우수리강 일대를 담당해야 했다.⁷⁴⁾ 그리고 청은 1654년 2월에 조선에 출병을 요구했다.⁷⁵⁾ 조선은 1636년 정축조약(丁丑條約) 제5조에 따라 청국이 대명(對明)작전상 파병을 요구하면 이를 즉시 수행해야 했다.⁷⁶⁾

한편 1653년 하바로프의 소환 이후 아무르 지역의 카자크 부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임 카자크 대장 스테파노프의 아무르 원정은 하바로프 때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지휘관의 재능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하바로프가 모스크바로 떠난 이후 아무르의 사정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먼저 봉직귀족 지노비에프가 하바로프와 함께 모피세 장부와 통역관들을 모스크바로 데려 간 것이 카자크들의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⁷⁷⁾ 또한 하바로프의 소환 이후 아무르 지역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 외중에 보급이 순조롭지 않아 화약과 탄환이 크게 부

71)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2일 계해.

72) Мелихов, 앞 논문, p.256.

73) 반윤홍, 앞 논문, 127쪽.

74) 박태근, 위 논문, 239~240쪽

75)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2일 계해.

76) 반윤홍, 앞 논문, 127쪽.

77) ДАИ, Т.3, No.122, p.524.

족했다.⁷⁸⁾ 그러나 무엇보다 청과 원주민들의 대비가 더욱 강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청 정부는 카자크들이 아무르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식량 증대를 막았고 이 때문에 아무르의 카자크들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⁷⁹⁾ 카자크 전사들은 농사에 익숙하지 않아 러시아 농민들의 식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체 경작을 통한 식량보급은 힘들었다.⁸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스테파노프는 청군의 공격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없이 1654년 봄에 식량과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송화 강으로 들어섰다.⁸¹⁾ 강을 따라 3일 간 하향하던 스테파노프 부대는 1654년 6월6일에 “각종 화기로 무장한 병사들이 탑승한 거대한 중국 전투 병력”과 마주쳤다.⁸²⁾ 이렇게 해서 제1차 '나선정벌'로 알려진 '송화강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조선군 지휘관 변급에 따르면 청군의 선박은 큰 것이 20척(17인용), 작은 것은 140척(4-5인용)이었고, 병력은 청군이 최소 300명, 월합인 300명, 조선인 152명으로 총 752명이 넘었다. 러시아 기록을 보면 월합인은 다우르인과 듀체르인이었다. 한편 러시아 군은 큰 배 13척(3백석 실을 크기)에 작은 배 26척 등 총 39척이었고, 승선 인원은 몸값을 받기 위해 사로잡은 인질을 포함해 약 400명이 못 되었다.⁸³⁾

전투 상황에 대한 조선군 지휘관 변급과 카자크 지휘관 스테파노프의 진술 모두 상세하지는 않지만 둘을 종합하면 대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청군은 선박과 강변에 군사를 배치하고 있었고, 카자크들은 모두 선박 안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먼저 강 위에서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후 양측은 강변

78) PKO, No.75, p.193.

79) PKO, No.75, p.196.

80) Г. И. Невельской, *Подвиги русских морских офицеров на край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1849-1855 гг.* (Петербург, 1878), p.6.

81) PKO, No.75, pp.193-194.

82) PKO, No.75, p.194.

83) 『효종실록』 14권, 6년 4월23일.

으로 옮겨 전투를 벌이다 결국 러시아 군이 퇴각했다.⁸⁴⁾ 러시아 측 자료는 기록자인 카자크 입장에서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스테파노프는 강변과 강위에서 협공을 반자카자크 병사들을 작은 배들로 분산시킨 후에 청의 선박들을 물리쳤고 승선하고 있던 청군은 급히 강변으로 상륙했다. 카자크들은 이를 뒤쫓았고 강변에서 양측 사이에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많은 카자크들이 부상을 당했고, 화약과 탄환이 떨어져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⁸⁵⁾

카자크들은 청군이 중국인, 다우르인, 듀체르인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조선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변급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선군은 강변 쪽 언덕 위에 세워진 목책에 의지해 카자크들에게 충격을 가했다. 이는 카자크들에게 꽤 위협이 되었던지 신유 장군의 일기에는 건부락 사람들의 말을 빌려 적들이 말끝마다 “머리 큰 사람들이 매우 두렵다”고 했는데 이는 병거지를 쓴 조선 조총병을 가리킨다.⁸⁶⁾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1654년 전투’는 처음에 강 위에서 전개되었고 이때는 카자크들이 우세했다. 이후 전투는 강변으로 옮겨져 청·아무르 연합군이 카자크 부대와 백병전을 벌였다. 조선군은 언덕 위에서 강변으로 상륙하는 카자크들에게 충격을 가했고, 이 때문에 카자크들의 상륙이 수월하지 않았고 결국 강변 전투에서 카자크들은 화약과 탄환이 부족해 패퇴했다. 그리고 아무르 원주민들은 카자크들이 대두인(大頭人, 병거지를 쓴 조선군)의 충격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다녔다. 결국 제1차 나선정벌의 승패를 갈랐던 강변 위의 백병전에서 조선군의 충격은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결과적으로 ‘1654년 전투’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은 다음 해인 1655년에 승리의 여세를 몰아 아무르 상류 지역의 카자크 부대를 격파할 생각으로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15대의 대포와 1만의 병력

84) PKO, No75, p.194; 『효종실록』 14권, 6년 4월23일.

85) PKO, No75, p.194.

86) 『북정일기』, 71쪽.

을 동원하여 쿠마르스크 요새를 포위한 후 공격을 가했다.⁸⁷⁾ 그러나 막강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청군은 개방된 지역에서의 전투와는 달리 공성전에서 취약함을 보였고, 결국 카자크의 반격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고 퇴각했다. 카자크는 2대의 대포와 800개의 포탄 그리고 30푸드(약 490킬로그램)의 화약을 손에 넣어 부족한 군수품을 보충했다.⁸⁸⁾ 전반적으로 청과의 전투에서 러시아 카자크는 수상전보다는 공성전에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쿠마르스크 요새를 사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식량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청 정부는 러시아 군의 생존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아무르 주민들을 남쪽으로 소개하는 등 더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IV. 1658년 러청전투: 제2차 '나선정벌'

1554년 러청전투(제1차 '나선정벌')는 청과 러시아 정부 양측이 서로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면, 1658년 러청전투(제2차 '나선정벌')에서는 양측 모두 상대가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1654년에 러시아의 대중국 사절 바이코프는 차르의 명령서를 받고 토볼스크를 출발하여 서몽골을 지나는 먼 여행 끝에 청에 도착했다. 그는 청 관리로부터 온갖 푸대접을 받은 후, 1656년에야 겨우 북경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때 이미 청은 아무르 지역에서 군사 대립을 하는 상대가 러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의 관리들은 바이코프에게 왜 러시아 군주는 이렇게 평화사절을 보내면서 다른 곳에서 너희 사람들은 아무르를 공격하는지 물었고, 바이코프는 이에 대해 "그들은 자유민들(люди вольные)이다"고 대답했다.⁸⁹⁾ 그리고 최소한 이러한 상황이 모스크바에 보고된

87) Леонтьева, 앞 책, pp.110~111.

88) Невельской, 앞 책, p.7.

89) РКО, No85, p.218.

1657년 3월경에는 러시아 정부 역시 아무르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대가 중국을 정복한 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⁹⁰⁾

그 무렵 청의 정책은 매우 공세적으로 바뀌어 아무르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초토화하여 무인지대로 만들 계획이었다.⁹¹⁾ 이미 1656년 7월에 아무르의 카자크 대장 스테파노프는 야쿠츠크 지사 로디첸스키(M.C. Лодыженский)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당시 아무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아무르 강을 따라 송화 강까지 듀체르인들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르 강에는 듀체르인들이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보그도이 차르는 익명의 듀체르인들을 대(大) 아무르 강과 송화 강 하류에서 자신의 보그도이 땅으로 데려갔습니다.…”⁹²⁾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르 카자크들의 처지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무엇 보다 식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스테파노프는 자기 부하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어서 풀과 나무뿌리를 캐 먹고 있지만 군주의 명령이 없으면 아무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탄원했다. 또한 선박을 만들 목재도 필요했고, 충분하지 않은 탄환도 걱정이었다.⁹³⁾

모스크바 정부도 아무르 지역에 대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1654년 말에 야쿠츠크 정청과 별도로 아무르 정청을 설립할 계획으로 파쉬코프를 아무르 유역과 연해주 일대를 관할할 지사로 임명했다.⁹⁴⁾ 1655년에 모스크바 정부는 아무르 카자크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쉬코프와 함께 화약 50 푸드(약 819킬로그램), 납 100푸드(약 1,638킬로그램), 술 100통, 호밀가루 80체트베르티(약 9,600킬로그램), 곡물 알갱이 10체티(약 2,000리터) 등을 보낼 것을 명했다.⁹⁵⁾ 파쉬코프는 1656년에 출발하여 1658년 봄에야 아무르 지역에 도착하여 실카 강 하류의 네

90) РКО, No85, pp.217~218.

91) Мясников, 앞 책, p.124.

92) РКО, No82, p.213.

93) РКО, No82, p.214.

94) РКО, No78, pp.200~204.

95) ДАИ, Т.4, No17, pp.40~41.

르친스크 요새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아무르 지역에서 만주인들과 본격적인 투쟁을 벌이려는 것은 아니었다. 모스크바 정부는 신임 지사 파쉬코프와 아무르의 카자크들에게 만주인들의 지역을 약탈하지 말며, 평화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⁹⁶⁾ 파쉬코프는 네르친스크에 도착해서 지시에 따라 아무르에 나가 있는 스테파노프에게 만주로 드나들지 말고, 침략과 약탈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라는 칙령을 보냈다.⁹⁷⁾

그러나 카자크들은 정규군이 아닌 자유민 출신 모험가들이었고, 광대한 시베리아에서 이들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다. 1657년에 아무르의 한 러시아 봉직자는 아무르 카자크들이 차르의 허락 없이 보그도이 인들을 공격하고, 아무르 주민들을 약탈하고 있다며 차르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⁹⁸⁾ 그러나 청의 아무르 소개 작전이 시작되면서 카자크들의 약탈은 더욱 심해졌다.⁹⁹⁾ 식량과 보급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카자크들에게 자중하라는 명령은 현실성이 없었던 것이다. 1658년 초 겨울에도 스테파노프는 카자크 부하들을 이끌고 아무르 강변의 쿠민스크 요새에서 겨울을 보냈다. 봄이 되자 요새를 떠나 모피 조공을 거두고, 파쉬코프 지사와 만나기 위해 아무르 상류로 올라가다 청의 대군과 마주쳤다.¹⁰⁰⁾ 이 전투가 조선군이 참여하여 제2차 '나선정벌'로 알려진 1658년 러청전투이다.

이에 앞서 청 황제는 조선 왕에게 칙서를 보내 '나선'이 청의 국경을 침범하고 있으니, 군수품과 정예 조총수 200명을 급파하라고 명했다.¹⁰¹⁾ 이렇게 해서 조선은 신유의 인솔 하에 260명의 조총병을 파병하여 청군에 합류했다. 먼저 양측의 병력을 비교하면 오누프리 스테파노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카자크 부대는 11척

96) Попов, 앞 책, p.409 참고.

97) Невельской, 앞 책, p.8.

98) ДАИ, Т.4, №40, pp.94-95.

99) Невельской, 앞 책, p.7 참고.

100) РКО, №103, p.241.

101) 『청실록』 순치 15년 2월조 (반윤홍, 앞 논문, 131쪽에서 재인용)

의 선박에¹⁰²⁾ 약 315명의 병력이 타고 있었다.¹⁰³⁾ 한편 사르후다(沙爾虎達)가 인솔하는 청군은 러시아 관리 페트르롭스키의 보고에 따르면 총 47척의 선박이었는데,¹⁰⁴⁾ 신유 장군은 상선(上船) 4척, 대중선(大中船) 36척, 중소선(中小船) 12척으로 총 52척이고 화포는 50대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⁰⁵⁾ 이러한 수치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 도원수와 부원수가 탑승할 상선을 제외하면 48척으로 러시아 측 추산 47척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계승범은 청군의 병력을 대략 2,500명 정도로 추산한다.¹⁰⁶⁾ 조선 조총병은 한 배에 5명씩 탑승했고, 청 포수(영고탑 포수) 역시 5명씩 승선했다.¹⁰⁷⁾

전반적으로 청과 러시아의 군사력은 선박 47척 대 11척, 병력 2,500명 대 315명으로 청군이 절대 우세한 상황이었다. 청의 병력은 그 구성원으로 볼 때 청군이라기보다 동북아시아의 다민족 연합군이었다. 이들은 만주인, 왈가인(듀체르인), 건부락인(길랴크인), 조선인, 몽골인, 한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러시아 병력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호전적 자유민 전사 집단인 카자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자크들 역시 슬라브계가 상당했고 러시아 언어와 문화가 주를 이루었으나, 기원으로 보면 유라시아의 다종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¹⁰⁸⁾ 이들은 탄환과 식량이 부족하여 대규모 전투를 수행할 입장이 아니었다. 같은 해 봄에 파쉬코프 지사가 네르친스크에 도착했지만, 아직 대면하지 못한 상태였다.

102) 『북정일기』, 87, 90쪽.

103) 아무르 지사 파쉬코프의 보고서에는 3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659 г. PKO, No.99, p.236; 심문조서에서 스테파노프의 부하 대원 페트르롭스키는 총 315명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PKO, No.103, p.242.

104) PKO, No.103, p.242.

105) 『북정일기』, 81-82쪽.

106) 계승범, 앞 논문, 231쪽.

107) 『북정일기』, 84쪽.

108) Н. Смирнов, *Забайкальское казачество* (Москва, ВЕЧЕ, 2008), p.9 참고; 바르톨드는 카자크라는 말이 투르크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В. В. Баргольд, *Сочинения* Т.5 (Москва, 1968), p.535.

전투는 1658년 6월30일에(북정일기에는 6월10일) 아무르 강이 송화 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아무르 강 하류 쪽으로 30여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다.¹⁰⁹⁾ (지도2 참고) 러시아 측 보고서들은 그 장소를 '코르체예프 굴곡부(Корчеевская лука)'라 명시한다. 아무르 강 하류의 쿠민스크 섬에서 겨울을 난 스테파노프 일행은 모피 조공을 견고, 파쉬코프 지사를 만나기 위해 강 상류로 이동하던 중 듀체르인들에게 청의 대규모 부대가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스테파노프의 본대는 청군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클림코 이바노프(Климко Иванов)를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라 상류 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청의 대규모 병력을 만나게 되었다.¹¹⁰⁾

한편 송화 강변에 머물고 있던 청군은 6월25일(북정일기에 6월5일)에 출발해서 송화 강 하류를 따라 내려왔다. 아마도 청군은 식량이 부족한 카자크 부대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고, 첩보를 통해 그들의 동선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청군은 6월26일에 카자크에게 불모로 잡혀 있다 풀려난 왈가(曰可) 여자를 통해 러시아 병력이 13-14척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¹¹¹⁾ 그리고 6월 28일(북정일기에 6월8일)에 산유는 적선 3척이 아무르 강구에 이르렀다가 건부락의 한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¹¹²⁾ 아마도 스테파노프가 먼저 보낸 이바노프 일행일 듯하다.

청·조선·아무르 연합군은 6월29일(북정일기에 6월9일)에 대장 사르후다의 고향인 열벌 마을에 머물다 30일에 아무르 강구를 지나 20여리 내려가는 길에 카자크 선박들을 발견하고 즉각 공격을 가했다. 카자크 선박들은 10여리를 후퇴해 강가에 배를 모아 포진한 후 관옥 위에 올라서서 연합군의 동정을 살폈다.¹¹³⁾ 연합군은 적선과의 거리가 한 마장쯤으로 가까워지자 공격을 개시했고, 카자크

109) 『북정일기』, 87쪽.

110) РКО, No.103, pp.241~242.

111) 『북정일기』, 85쪽.

112) 『북정일기』, 85-86쪽.

113) 『북정일기』, 86-87쪽.

부대도 이에 응수해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때 연합군의 모든 선박들이 앞뒤 할 것 없이 일시에 쳐들어와 활과 총포를 무수히 쏘자 카자크들은 지탱하지 못하고 배속으로 들어가 숨기도 하고 혹은 배를 버리고 강가의 풀숲으로 도망치기도 했다.¹¹⁴⁾ 신유 장군은 이 때 화공을 써서 적선들을 불태웠다면 '아군'의 손실이 없었을 텐데 대장이 재물을 탐내 불태우지 말라 명령한 것이 화근이 되어 사상자가 많이 생겼다고 썼다. 양 측의 선박이 가까워지자 배속에 은신해 있던 카자크들이 연속사격을 가해와 연합군 측도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었기 때문이다.¹¹⁵⁾ 그러나 이미 청군의 계속되는 공격에 러시아 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날이 어두워지자 아습을 틈타 1척의 러시아 배가 도주했다.¹¹⁶⁾ 이렇게 1658년 6월30일(북정 일기에 6월10일) 전투는 연합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조선군은 '1658년 전투'의 승부를 결정지은 총격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조선 조총병들은 약 40척의 선박에 5명씩 분산되어 있었고, 영고담 총병들도 각 선박에 5명씩 탑승하고 있었다.¹¹⁷⁾ 1차 접전인 포격전이 서로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던 반면에 2차 총격전에서는 연합군 측이 카자크 부대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즉 조선과 영고담 조총병들의 총탄에 카자크 부대의 전열이 무너졌고, 그들 중 일부는 배에 남았으나 다른 이들은 배를 버리고 강가로 도주했던 것이다. 신유 장군은 카자크들이 끝까지 배에서 맞섰더라면 승부를 가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했다.¹¹⁸⁾ 이후에 벌어진 전투 상황들 모두가 중요했지만, 승패의 분기점은 분명 카자크들의 전열을 무너뜨려 우왕좌왕하게 만든 총격전이었다. 그리고 조총병들 가운데서 조선군 조총병의 역할이 컸을 것은 명확해 보인다. 신유 장군은 조선군의 사격술은 청군에 비해 월등했는데 영고담 총병들은 연습사격에서 "반 이상이나 포술에 생소하여 과녁을 맞히는 자는 약간 있을 뿐이

114) 『북정일기』, 88-89쪽.

115) 『북정일기』, 89쪽.

116) 『북정일기』, 90쪽.

117) 『북정일기』, 84쪽.

118) 『북정일기』, 94쪽.

라고 썼다. 그리고 만약 저들 청군이 포재(砲才)마저 검했다라면 이른바 호랑이 날개 돌친 격으로 막강했을 것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¹¹⁹⁾

물론 신유 장군의 견해를 받아들여야만 실제로 조선 총병들의 사격술이 뛰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전반기에 조선 총의 성능과 작전 능력이 발전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의 전쟁사 연구자인 L.A. 보브로프와 A. M. 파스투호프는 17세기 조선 총은 일본 총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나, 일본 그리고 청의 것보다 다르게 총신을 길게 만든 것이 중요한 혁신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17세기 만들어진 조선 화승총은 약간의 변화와 함께 19세기 말까지 이어졌다.¹²⁰⁾ 19세기 초에 훈련도감에서 발간한 <용원필비(戎垣必備)>에 따르면 “총신이 길면 화기가 새지 않아서 총알이 멀리 나가고 힘이 있다. 쏘면 능히 명중함은 나가는 총구가 곧으데 있다. 총구가 곧으면 장약하는데 알맞고 점화해도 동요하지 않는 고로 능히 열 발을 쏘면 반드시 8·9가 명중한다.”¹²¹⁾ 몇몇 학자들은 17세기 전반과 중반 조선 조총의 발전이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인들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한다.¹²²⁾ 이러한 군사사 연구를 종합하면 신유장군이 연습 사격에서 조선 조총병의 명중률에 대해 피력한 자부심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정일기>에 따르면 청군 전사자는 110명, 부상자가 200명이었고, 조선군은 8명이 사망했고, 26명이 중상을 입었다.¹²³⁾ 1659년에 카자크 부대원 페트리롭스키(A.Ф. Петриловский)의 진술에 따르면 카자크 부대는 지휘관 오노프리

119) 『북정일기』, 73~74쪽.

120) 17세기 중엽 조선 총의 총신은 100~110cm였다. Бобров, Пастухов, 앞 논문, pp.291, 293.

121) 李康七, 「朝鮮孝宗朝 羅禪征伐」, 21쪽 재인용.

122) Бобров, Пастухов, 앞 논문, pp.291; Kang, Hyeok Hweon, “Big Heads and Buddhist Demons: The Korean Musketry Revolution and the Northern Expeditions of 1654 and 1658” *Journal of Chinese Military History*, vol. 2(2) (Brill, 2013). p.158 참고.

123) 『북정일기』, 99~100쪽.

스테파노프를 포함해 270명이 사망했고, 생존자 227명 중 일부는 산으로 도망가고 일부는 ‘스파스코예(Спаское) 호를 타고 도주했다.’¹²⁴⁾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피해가 더 컸지만, 연합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다만 러시아 측은 인명 피해도 컸지만 아무르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 패잔병들의 모습을 보면 카자크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러시아 패잔병들은 1659년에 한 곳에 모였는데 그 수가 180명 정도였다. 이들은 모피를 수집한 후 파쉬코프 신임 지사를 만나기 위해 아무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쿠마르스크 보루에 도착했다. 이곳에 지사는 없었고 카자크들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주리게 되었다. 이후 다른 패잔병들이 합류하여 그 인원이 227명에 이르렀으나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패잔병들의 절반은 쿠마르스크 요새를 지키고, 나머지 반은 파쉬코프 지사를 만나기 위해 아무르 상류로 더 항해해 알바진에 도착했으나, 여기서도 지사를 만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투기르 연수육로까지 도달했으나 거기에도 지사는 없었다. 이들은 결국 투기르 연수육로를 넘어 올레크마 강으로 나아갔는데 극심한 굶주림으로 풀, 산딸기, 나무뿌리 등을 먹어야 했다.¹²⁵⁾(지도2 참고) 한편 스테파노프가 정찰을 위해 먼저 보냈던 클림코 이바노프의 부대는 다시 스테파노프의 본대로 돌아오다 처참하게 파괴된 카자크 부대를 둘러싼 청군을 목격했다. 이들은 일단 도주에는 성공했으나, 역시 식량난으로 많은 대원들이 아사했고, 결국 클림코 이바노프 역시 듀체르인들에게 살해당했다.¹²⁶⁾ 전반적으로 1658년의 전투에서 러시아 측은 청·조선·아무르 연합군의 공격과 그 후에 이어진 굶주림으로 인해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658년 전투 이후에 카자크들이 아무르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어

124) PKO, No.102, p.240.

125) PKO, No.102, p.240.

126) PKO, No.103, p.242.

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만 1661년에 새로운 무리의 카자크들이 들어와 아무르 상류에 알바진 요새를 강화했고, 나중에 모스크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¹²⁷⁾ 그리고 1670년대 초에 러시아 농민들의 알바진 식민이 진행되면서 알바진이 아무르의 새로운 러시아 거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¹²⁸⁾ 한편 1660년대가 되면서 청 정부는 러시아의 아무르 진출에 손을 놓게 되었다. 이러한 청의 입장은 1680년대 초까지 지속되어, 대략 1665~1683년에 청과 러시아 사이에 공식적인 전투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G. V. 멜리호프는 청은 전반적으로 아무르 문제를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로 여겼다고 주장한다.¹²⁹⁾ 당시 청 정부는 아무르의 카자크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1660년에 삼번의 난이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의 군사력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했다. 강희제는 1667~75년 사이에 기군 179개 중대를 늘려서 청의 군대는 총 799개 중대에 이르렀고, 이 병력들은 최종적으로 중국 지배를 완료하는 결정적인 전쟁에 투입되었다.¹³⁰⁾ 청은 1683년에 타이완에서 마지막 저항 세력들을 진압한 후에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¹³¹⁾ 이때부터 청의 군대가 다시 알바진의 카자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V. 맺음말

러시아의 동방진출은 처음부터 국가가 주도한 사건은 아니었다. 시베리아 팽창을 시작한 것은 모피 수익을 얻기 위한 민간업자들이었고, 특히 러시아 변경 지역의 자유민 카자크 전사들이 이를 주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사후에 이러한 모

127) Попов, 앞 책, p.69.

128) Попов, 앞 책, p.69.

129) Мелихов, 앞 논문, p.261.

130) 퍼듀, 앞 책, 183쪽.

131) 스펜스, 앞 책, 84~86쪽.

피 원정이 국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카자크의 정복 사업을 승인하고 필요한 지역에 정착을 두어 이들을 관리했다. 러시아의 아무르 진출도 이러한 동방팽창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다만 아무르 지역에서는 청이라는 강력한 국가와 조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곳과는 달랐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식 문서들을 보면 러시아 정부는 애초부터 중국과 대립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평화적인 외교 및 무역 관계를 수립하기를 지속적으로 원했다. 더욱이 당시 러시아는 오스만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산적한 투쟁이 급선무여서 파쉬코프 지사가 예니세이에서 네르친스크까지 이동하는 데만 1년 반이 걸렸던 먼 곳에서 강력한 청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1650년대에 아무르 지역에서 벌어진 러청 간의 충돌도 러시아의 의도적인 남하와는 관련이 없었다. 무엇보다 초기에는 청과 러시아 양측 모두 싸우는 상대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1652~54년에 아무르 카자크들이 보그도이(청)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엉뚱하게도 청에 바이코프가 이끄는 외교사절을 파견했던 것이다. 이후, 아마도 1654~57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도 아무르의 보그도이가 청이고, 청이 중국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아무르 지사 파쉬코프와 카자크 대장 스테파노프에게 아무르 주민들을 약탈하지 말며, 보그도이(청)의 영토로 진입하지 말 것을 명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멀리 떨어진 자유민 카자크들의 행동을 충분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두 차례의 나선정벌 사건도 러시아의 남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르의 카자크들은 그들이 중앙정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과 물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청 정부도 카자크의 식량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아무르 일대의 곡식 재배를 제한하고 원주민을 소개하여 식량 보급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폈다. 식량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유민 카자크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목재 등을 구하기 위해 송화강 상류로 들어왔다. 그리고 러시아 카자크들은 아무르 주민들은 물론이고, 송화강변까지

와서 약탈을 자행했다. 그러나 굶주린 상황에서 저지른 이들의 행동을 남진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모스크바 정부의 지속된 명령을 어기고 정부가 정해 놓은 선을 넘은 이탈부대였다.

러시아 카자크 부대를 응징한 '나선정벌'에는 조선인뿐 아니라 아무르 원주민, 만주족, 한인, 몽골인 등 동북아의 다양한 민족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포를 쏘고, 선박을 조종하고, 갈고리를 던져 적선을 끌어당기고, 적선에 침투하여 백병전을 벌이고,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등 일련의 전투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담당했다. 궁극적으로 나선정벌의 승리는 전투에 참여한 연합군의 승리였다. 그러나 러시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군이 1654년과 1658년의 '나선정벌'에서 단순히 부차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은 아니다. 1차 나선정벌에서 언덕에서 쏘아대는 조선군의 집중 사격은 강변으로 내몰린 청군을 뒤쫓는 카자크 부대를 격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수상전에서 패퇴했던 연합군이 강변 전투에서 최종적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2차 '나선정벌'의 승패를 가른 총격전에서도 조선군의 역할은 중요했다. 양측 간 최초 충돌은 북경 포수와 카자크 간의 포격전이었는데, 치열한 공방전만 있었고 승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두 번째 충돌은 총격전이었는데 조선군이 주도한 총격이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성과를 냈다. 카자크의 입장에서 육지가 아닌 수상의 적정거리에서 명중률이 높은 조총병들이 쏘는 총탄은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대원들이 배를 떠나 강가로 이동했던 단순한 실수 때문에 카자크 부대가 패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실수는 위력적인 총격전의 충격이 가져온 결과였다. 이는 중요한 전투에서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선정벌'에서 조선군의 역할은 언급한 역사적 기록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추정된 러시아의 남진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 '나선정벌'을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러시아 정부는 부족 단계의 아무르 주민들을 러시아 신민으로 복속하려 했지만, 일관되게 청과 충돌하기보다는 평화로

운 교역을 원했다. 무엇보다 17세기 상황에서 러시아가 청과 전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모스크바에서 직선거리로 7,000킬로미터가 넘는 먼 아무르 지역에서 통틀어 약 500명, 그것도 기아에 허덕이는 병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과 보급망을 가진 청을 상대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689년의 네르친스크 조약은 별도의 논문으로 다뤄야겠지만 '나선정벌'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청의 군사적 위협과 서몽골이 포함된 한층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군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 동북아 연합군이 두 차례의 '나선정벌'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총격전에서 조선군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군은 비록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먼 곳까지 출정하여 여러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무르 주민들을 약탈하는 카자크들에게 중요한 타격을 입혔다.

(투고일자: 2017.09.30 심사일자: 2017.11.09 게재확정일자: 2017.11.24.)

주제어 : 러청충돌, 러중접경, 카자크, 아무르, 나선정벌

Keywords : Russo-chinese conflict, Russo-chinese contact zone, Cossack, Amur, Manchu-Korean expeditions

[참고문헌]

- Акты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бранные и изданные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ю комиссией.* Т.4. 1645~1676 (Петербург, 1842).
- Дополнения к актам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ранные и изданные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Т.3 (Петербург, 1848).
-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VII веке. Материалы и документы.* Т.1. 1608~1683 гг. (Москва, 1969).
- Бартольд, В. В., *Сочинения* Т.5 (Москва, 1968), p.535.
- Беспрозванных Е. Л. *Приамурье в системе рус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XVII – середина XIX в.* (Москва, 1983).
- Бобров, Л. А., Пастухов А. М. “Роль ручного огнестрельного оружия в венном искусстве кореи в XVII веке,” *Вестник НГУ. Серия История. Филология.* Т.11. Вып.3 (2012).
- Васильев, Б. А., “Народы приамурья”,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СССР.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XVII в.* (Москва, Изд-во АН СССР, 1955).
- Водарский, Я. Е.,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и за 400 лет (XVI – начало XX вв.)* (Москва, 1973).
- Волков, В., *Войны и войска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ю (конец XV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XVII в.)* (Москва, 2004).
- Волховитинов, Н. Н., отв.ре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1732~1867).* Т.1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 отношения, 1997).
- Дудникова, А. В., “Роль Кореи в «Албазинских войнах» 1654 и 1658 гг.,” (2014년 6월 동아시아 슬라브학술대회).
- Каплин, А. А., *Пушнина СССР* (Москва, 1960).
- Леонтьева, Г. А., *Землепроходец Ерофей Павлович Хабаров* (Москва, 1991).
- Мелихов, Г. В.,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на восток и Нерчинский договор с Китаем”, *Истор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онец XV–XVII век (От свержения ордынского ига до Северной войны)*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 Морозова, Е. О.,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торгов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конце XVI – середине XVII века”, Автореферат канд. ист. наук (Екатеринбург, Урал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2013).

- Мясников, В. С., “Становление связей ру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 Китаем”,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VII веке. Материалы и документы*. Т.1. 1608~1683 гг. (Москва, Наука, 1969).
- _____, *Империя Цин и рус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XVII веке* (Москва, 1980).
- Невельской, Г. И., *Подвиги русских морских офицеров на край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1849~1855 гг.* (Петербург, 1878).
- Новосельский, А. А., “С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СССР.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XVII в.* (Москва, Изд-во АН СССР, 1955).
- Огородников, С. Ф., *Очерк истории города Архангельска в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м отношении* (Петербург, 1890), pp.41~42.
- Павленко, Н. И., Андреев И. Л., Кобрин В. Б., Федоров В. А.,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1861 года* (Москва, Высш. шк., 1996).
- Попов, И., *Россия и Китай 300 лет на грани войны* (Москва, 2004).
- Симбирцева, Т. М.,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их отрядов в Албазинских войнах 1654 и 1658: Источники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3 (Благовещенск, 2001).
- Смирнов, Н., *Забайкальское казачество* (Москва, ВЕЧЕ, 2008).
- Тимонин, Е. 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Сибири. Конец XVI/XIX вв.* (Омск, 2012).
- Kang, Hyeok Hweon, “Big Heads and Buddhist Demons: The Korean Musketry Revolution and the Northern Expeditions of 1654 and 1658”, *Journal of Chinese Military History*, vol. 2(2) (Brill, 2013).
- Hellie, Richard, *Enserfment and Military Change in Muscov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효종실록』

신유/박태근 역, 『북정일기』(정신문화연구원, 1980).

姜周鎭, 『韓國과 러시아의 外交史의 考察』 『대구사학』 13(대구, 대구사학회, 1977).

계승범,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사학연구』 110(서울, 한국사학회, 2013).

두다료노프, S. M. 외/양승조 역,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진인진, 2018).

바필드, 토마스/윤영인 역, 『위태로운 변경』(동북아역사재단, 2009).

- 박명용,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문제 -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논총』 4(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5).
- 박태근, 「朝鮮軍의 黑龍江出兵」 『한국사론』 9(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3).
- 반윤홍, 「備邊司의 羅禪征伐 籌劃에 대하여: 효종조 寧古塔 파병절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11(서울, 고려사학회, 2001).
- 맥닐, 윌리엄/신미원 역, 「전쟁의 세계사」(이산, 2005).
- 스펜스, 조너선 D./김희교 역, 「현대중국을 찾아서」 1(이산, 1998).
- 스켈톤 R. A./안재학 역, 「탐험지도의 역사」(도서출판 새날, 1995).
- 심헌용, 「러시아 동진의 군사적 성격과 통치구조(16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중소연구』 27권 2호(서울,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2003).
- 李康七, 「朝鮮孝宗朝 羅禪征伐과 被我 烏銃에 對한 小考」 『古文化』 20(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2).
- 이 철, 「시베리아 개발사」(서울, 민음사, 1990).
- 이완중, 「러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동북아 역사논총』 4(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5).
- 퍼듀, 피터 C./공원국 역, 「중국의 서진」(길, 2014).

[Abstract]

The Expansion of Russia into Northeast Asia and the Significance of Manchu-Korean Expeditions during 1650s

Park, Ji-Bae
(Hankuk Univ.)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significance of the dispatch of Joseon's troops to Amur region in the context of Russia's advance to the East and Russo-Chinese diplomatic relations in the first half of seventeenth century.

Russia's advance to the East wasn't the incident that Russian tsar dominated. Russian government didn't intend to be in conflict with Qing and didn't order cossacks to attack Manchuria and prohibited them from plundering native Amur. Russian tsar just wanted to establish the trade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But cossacks were the group that was difficult to be controlled.

Joseon arquebusiers participated in the battles of 1654 and 1658, known as the Naseonjeongbeol in Korea. But these battles weren't started by the Russian government. The direct cause of the outbreak of the battles was because the Russian cossacks came into Songhua River to get foods. Qing government could not condone it. The battles were overwhelming victories of the allied force of Qing, Joseon and Amur.

Naseonjeongbeol wasn't the world historical event to block the advance of Russia to South. Russian government didn't intend to expand southward. Russian cossacks were just enthusiastic to get something to eat. But there is no need to underestimate the role of Joseon's arquebusiers in the battles. They decisively contributed in gunfight that determined the battle.